

만 2세 영아의 어머니가 가상/역할 놀이와 책읽기 맥락에서 사용하는 정신 상태 용어

김희진*

Mental-state Talks of Mothers with 2-year-olds in Pretense/Role-play and Book Reading Contexts

Kim, Hee Jin

본 연구는 어머니가 만 2세 자녀와 함께 가상/역할 놀이와 책 읽기의 두 맥락에서 상호작용하는 동안 어머니가 사용하는 정신 상태 용어의 특성을 살펴보고 비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36쌍의 어머니-만 2세 자녀 쌍이었다. 연구결과 어머니들은 책 읽기 맥락보다 가상/역할 놀이 맥락에서 정신 상태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세 가지 유형의 정신 상태 용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맥락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두 맥락 모두에서 욕구 상태 언어를 정서 상태나 인지 상태 용어보다 자주 사용하였으나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욕구 상태, 정서 상태, 인지 상태 용어는 개인 별로 편차가 매우 심했고, 하나의 맥락에서 정신 상태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어머니들은 다른 맥락에서도 정신 상태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마음이론 발달에 기여하는 어머니 역할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갖는다.

▶ 주제어 : 정신 상태 용어, 어머니 역할, 가상/역할 놀이 맥락, 책 읽기 맥락, 영아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heejin88@ewha.ac.kr

I. 서론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그 상호작용이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신과는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자신이나 타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능력을 마음이론이라고 정의한다(Flavell, 1999; Slaughter & Repacholi, 2003). 마음이론의 발달은 타인이 자신과는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발달적으로 매우 중요(Symons, 2004)하고 대부분 틀린 믿음 과제로 측정(Flavell, 1999)한다.

마음이론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초기에는 인지적 요인(예: 주의집중, 기억, 충동 통제 의 역할)(Carlson & Moses, 2001; Hughes, 2002)이나 경험에 대한 표상(예: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 대한 표상으로서의 애착)(Thompson, 2006; Thompson & Raikes, 2003)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 형제, 또래와 하는 상호작용 중 이루어지는 정신 상태에 대한 대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론의 발달은 생각, 믿음, 의도, 정서, 욕구 같은 정신 상태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Shahaeian, Peterson, Slaughter, & Wellman, 2011). 장기 연구 결과도 또래(Hughes & Dunn, 1998)나 부모(Meins, Fernyhough, Wainwright, Das Gupta, Fradley & Tukey, 2002; Ruffman, Slade & Crowe, 2002)와 한 초기 사회적 경험의 중요성을 입증했는데, 또래나 부모와 나눈 대화에서 사용한 정신 상태 용어¹⁾는 후일의 마음이론 발달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정신 상태 용어 사용과 마음이론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비고스키의 이론을 개념적 틀로 언급한다. Vygotsky(1978)는 언어라는 강력한 사회·문화적 도구를 통해 성인이 발달하는 어린 세대의 사회, 인지적 발달을 지원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성인과 언어적 상호작용 맥락에서 공동 구성된 의미는 유아에 의해 내면화 되어 유아가 하는 사고의 기원이 된다. 그러므로 이 관점에서 보면, 가족 내에서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정신 상태 용어는 독자적인 정신 활동을 하는 개체로서의 유아 자신과 타인의 생각, 감정, 욕구에 대한 이해를 내면화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자녀 간 대화에서 나타나는 정신 상태 용어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회상(Ontari & Thompson, 2008), 자유 놀이 중의 가장/역할놀이(Osórioa, Meinsb, Martinsa, Martins, & Soares, 2012; Symons, Fossum, & Collins, 2006), 일상 생활(Jenkins, Turrell, Kogushi, Lollis, & Ross, 2003), 책읽기 맥락(지은희, 조희숙, 2010; Ziv, Smadja, & Aramb, 2013)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자유놀이 중의 가장 놀이(pretense play) 또는 역할(role-play)놀이와 책읽기 맥락에서 실시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와 자녀가 하는 가장 또는 역할 놀이는 정신 상태에 대한 유아의 이해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 놀이를 시작하고 유지하고 적절히 종료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자녀는 서로가 수행하는 역할 속 맥락과 역할 밖 맥락을 수시로 넘나들면서 서로의 생각, 욕구, 감정에 대한 대화를 끝

1) 영어권 문헌에서는 language, term, talk, discourse 등의 다양한 어휘로 ‘용어’를 표현하나 한국의 문헌에서는 주로 ‘용어’로 표현됨.

임없이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또는 역할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정신 상태 용어 사용이 자녀의 다양한 측면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 본 연구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Symons 등(2006)은 어머니와 만 2세 자녀가 연령에 적합한 놀잇감이 준비된 방에서 놀이하는 동안 어머니가 언급한 인지와 욕구 상태 용어를 기록하였다. 자녀가 만 5세가 되었을 때 수행한 틀린 믿음 과제 점수와와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만 2세 때 어머니가 사용한 정서 상태 용어와는 관련이 없었고 욕구 상태 용어와만 관련이 있었다. Osórioa 등(2012)은 어머니와 만 3세 자녀를 해변에서 놀이한다고 가정하게 하고 적절한 소품을 제공한 후 놀이하는 동안 어머니와 자녀가 사용한 정신 상태 용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가 사용한 정신 상태 용어는 자녀의 사회적 상징 놀이 발달과 관련이 없었고, 자녀가 사용한 정신 상태 용어만 자신의 사회적 상징 놀이 발달 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정리하면 어머니가 사용한 정신 상태 용어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정신 상태 용어의 종류에 따른 영향력도 다를 수 있고, 현재의 발달과는 관련이 없더라도 후기의 자녀 발달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일관된 결과는 없다.

책읽기 맥락에서의 실시된 연구는 더 많은데, 책읽기는 정신 상태에 대한 유아의 이해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 영유아용 도서의 약 80%에 정신 상태에 관한 어휘가 수록되어 있고(Cassidy, Ball, Rourke, Werner, Feeny, Chu, et al. 1998),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주인공의 정신 상태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Ziv 등(2013)은 4-6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글 있는 그림책과 글 없는 그림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정신 상태 용어를 비교한 후, 글자 없는 그림책을 읽을 때 정신 상태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함을 보고 하였다. 저자들은 글자 없는 그림책을 줄거리를 읽기(story reading)보다는 줄거리에 대해 말하기(story telling)를 촉진하는 상황을 조성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Garner, Jones, Gaddy와 Rennie(1997)은 어머니가 글 없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안 주인공의 정서 상태와 원인과 결과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할수록 자녀의 정서 과제 이해 수행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 하였다. 지은희와 조희숙(2010)도 36개월-70개월 된 자녀를 둔 어머니가 글 없는 그림책을 읽는 것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는 자녀에 비해 2배 이상의 정신 상태 용어를 언급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Symons, Peterson, Slaughter, Roche와 Doyle(2005)는 5-7세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주인공에 대한 반전이 있는 책(즉, 학교에 처음 등교하는 날에 대한 걱정이 많은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학생이 아니라 교사였음)을 자녀와 함께 읽게 하였다. 특히 어머니가 주인공의 정신 상태에 대하여 원인 또는 결과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정의한 정교화(elaboration)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는데, 어머니의 정교화는 자녀의 마음이론 발달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책 읽기 맥락에서의 연구는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고, 글의 유무에 따라 정신 상태 용어 사용 빈도가 달랐지만, 현재 또는 미래의 자녀 발달과 관련 있는 경우가 더 많아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가장/역할 놀이와 책 읽기 맥락에서 각각 실행된 연구는 있지만 어머니의 정신 상태 용어 사용이 상이한 두 맥락에서 어떻게 다르게 또는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고 맥락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다. 비고스키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맥락은 상호작용하는 두 사람의 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Vygotsky, 1978). 맥락은 정의하기에 따라 물리적 장소, 수행해야 하는 과제, 상호작용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해석(Moss, Gosselin, Parent,

Rousseau, & Dumont, 1997)되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역할 놀이와 책 읽기 맥락을 비교하고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맥락을 비교하고 관계를 살펴보는 이유는 두 맥락 모두 어머니와 어린 연령의 자녀가 가장 빈번히 상호작용하는 맥락이지만 가장/역할 놀이에서는 놀이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고, 책 읽기 맥락에서는 어머니가 책을 읽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정신 상태 용어 사용에 대한 연구는 전형적으로 책 읽어 주기(예: Symons et al., 2005)나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 이끌어 내기(예: Dunn, Brown, & Beardsall, 1991)와 같이 어머니가 주도하는 맥락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녀가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가장/역할 놀이 맥락에서의 어머니의 정신 상태 용어 사용과 비교하고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맥락이 자녀가 정신 상태 용어를 경험할 수 있는 더 풍요로운 맥락인지 또는 어떤 맥락에서 특정 유형의 정신 상태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장/역할 놀이와 책 읽기 맥락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정신 상태 용어 사용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3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유아기의 부모 역할에 비해 걸음마기의 부모 역할은 알려진 것이 적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 2세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정신 상태 용어 사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Meins(1997)는 어머니들이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주제로 대화할 때 정신 상태를 언급하는 정도에 개인차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어떤 어머니들은 자녀의 행동이나 사물의 물리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를 하는 반면 어떤 어머니들은 자녀의 정신이나 마음의 상태에 대해 초점을 두고 대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정신이나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두고 대화하는 경향을 ‘마음을 중시(mind-mindedness)하는 경향’이란 개념으로 정의했다. Meins와 동료들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Meins, Fernyhough, Wainwright, Das Gupta, Fradley, & Tukey, 2002; Meins et al., 2003), 1세 때 어머니가 ‘마음을 중시’ 하는 방식으로 대화한 유아는 5세 때 마음 이론 과제에서 높은 수행 점수를 획득했음을 보고하였다. Osórioa 등(2012)도 현재 어머니가 사용하는 정신 상태 용어가 현재의 자녀의 사회적 상징 놀이 발달을 예측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현재 부모가 사용하는 정신 상태 용어는 그 효과가 축적되어 후기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두 연구는 비록 마음이론의 발달은 서로 상충하는 욕구 같은 복합적인 정신 상태를 이해하게 되는 3세-6세 사이에 일어나지만(Ziv & Frye, 2003), 마음 이론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대화 스타일의 차이는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존재하며 이런 대화 스타일의 역사가 모여 3세 경에 시작되는 마음이론 발달에 기여하게 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의 마음이론에 대한 연구가 최근 이뤄지고 있으나 정신 상태 용어 사용과 관련지어 이뤄진 연구는 많지 않다. 마음이론과 정신 상태 용어 사용과의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의 대부분의 유아의 정신 상태 용어 사용과 마음이론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예: 박금주, 2009; 송영주, 2009; 송정, 2007; 이영자, 이종숙, 신은수, 2004; 이영자, 이지현, 2006; 이은수, 2009)이고 글 없는 그림책 읽기에 나타난 어머니의 정신 상태 용어 사용과의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는 지은희, 조희숙(2010)의 연구 밖에 찾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와 외국 모두에서 어머니와 영아가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가장/역할 놀이와 책 읽기의 두 맥락에서 정신 상태 용어 사용을 비교한 연구는 없고, 영아기 초기부터 시작되고 지속되고 축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영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정신 상태 용어 사용을 살펴본 연구도 매우 드물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만 2세 자녀와 함께 가장/역할 놀이와 책 읽기의 두 맥락에서 상호작용하

는 동안 어머니가 사용하는 어머니의 정신 상태 용어 사용의 특성을 살펴보고 비교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아직 마음 이론이 발달하기 전인 영아기 부터 어머니가 사용하는 정신 상태 용어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런 특성이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자녀의 마음 이론 발달을 지원하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장/역할놀이와 책읽기 맥락에서의 정신 상태 용어 사용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가장/역할놀이와 책읽기 맥락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상태 용어 사용은 관련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은 가장/역할 놀이와 함께 책 읽기에 모두 참여한 36쌍의 어머니-만 2세 자녀이다. 자녀의 성은 남녀 각 18명으로 같았고 연령은 평균 24.4개월(표준편차 2.6개월; 범위 20-29개월)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나이는 35세(표준편차 3.7세)였고, 학력은 전문대 졸업 이하가 4명(11.1%), 대학 졸업이 28명(77.8%), 대학원 졸업이 4명(11.1%)이었다. 취업 유무를 살펴보면, 20명(55.6%)은 전업주부였고, 4명(11.1%)은 시간제로 일하고 있었고, 12명(33.2%)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2. 가장/역할 놀이와 책 읽기의 두 가지 맥락

가장/역할 놀이 맥락과 함께 책 읽기 맥락 모두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였다.

1) 가장/역할 놀이 맥락

가장/역할 놀이 맥락에 제공된 놀잇감은 영아에게 친숙하고, 조작할 수 있고 다양한 유형의 가장/역할놀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준비하였다. 인형은 동물과 사람 인형 모두 제시하였고 음식을 만들거나 대접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 색의 접시, 그릇, 컵, 칼, 모형 음식, 모형 음식 재료 등을 제시하였다. 영아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모형 음식이나 음식 재료는 모형 칼이나 손으로 떼거나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해서 실제 음식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생기도록 하였다.

가장/역할 놀이 맥락에서는 어머니에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첫째는 가정에서 자녀와 놀아 줄 때처럼 자연스럽게 놀아주라는 것이었다. 둘째는 15분이 지난 후에는 정리를 시작해도 되나 자녀가 원한다면 그만 놀고 싶을 때까지 놀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와 자녀의 놀이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녹화하여 모두 전사하였으나 소꿉놀이를 시작

한 후 치우기 전까지 소요된 시간은 어머니-자녀 쌍 마다 매우 다양했기 때문에 놀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0분간 어머니가 사용한 정신 상태 용어를 분석하였다. 놀이에 소요된 시간이 10분 보다 긴 어머니-자녀 쌍에 대해서는 초기 탐색이 끝나고 놀이가 활발해 진 시점부터 분석하기 위해 놀이 시간 후 2분 30초가 지난 시점부터 10분간의 상호작용 동안 어머니가 사용한 정신 상태 용어를 분석하였다.

10분의 상호작용만 분석한 것은 다음의 3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책읽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유사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놀이에 소요된 시간의 편차가 매우 컸으나 최소 15분 이상은 놀이했기 때문이고, 셋째는 외국의 연구(예: Symons et al., 2006)에서도 어머니와 자녀의 놀이에서 사용된 정신 상태 언어를 분석할 경우 10분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2) 책 읽기 맥락

어머니와 자녀에게 만 2세 영아에게 적절한 4권의 책을 제공한 후 원하는 책을 골라서 읽도록 안내 하였다. 정신 상태 용어에 관한 연구에서는 정신 상태에 대한 내용이 많은 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Symons et al., 2005; Ziv et al., 2013)한다. 4권의 책 모두 등장인물의 생각, 욕구, 감정에 대한 묘사가 많았고 영아들이 선호하는 일상생활, 놀이, 친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3권의 책에는 만 2세 영아들이 선호하는 조작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도 촉진될 가능성이 있는 책이었다.

<표 1> 어머니-자녀가 읽은 도서

서명(쪽)/출판사	저자/삽화	주요 줄거리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8쪽) 한국뼈아제	비키 처칠/ 찰스 푸지/ 김은영(역)	한 동물이 자신이 좋아하는 다양한 것들과 이유(‘악’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은 화나서가 아니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고 싶은 것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의 책
내 무늬를 돌려줘 (10쪽) 한솔교육	이연희/ 안은진	무늬 없는 코끼리가 얼룩말에게 무늬가 멋있다고 달라고 하자 얼룩말은 무늬를 줌. 무늬가 없어진 얼룩말은 표범을 만나 무늬를 받는 식으로 이어지면서 여러 동물끼리 서로 무늬를 주고받음. 맨 마지막 동물은 무늬가 없게 되자 속이 상해 다시 자기 무늬를 찾아가는 내용의 책/ 무늬를 조작할 수 있음
보송보송한 이불을 덮어줘요 (7쪽) 도서출판 파란	내 마음 콩콩/ 최정희	치타, 돼지 등의 다양한 아기 동물과 아기가 여러 즐거운 놀이를 한 후 잘 때 포근한 이불을 덮어 주면 기분 좋게 잘 잔다는 내용의 책/ 이불을 조작할 수 있음
코끼리아 코끼리아, 뭐하니? (7쪽) 도서출판 파란	내 마음 콩콩/ 윤혜영/	코끼리, 고릴라, 호랑이 등 다양한 동물이 좋아하는 피리, 북 등의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다 나중에 다함께 즐겁게 합주하는 내용의 책/ 악기 연주를 위한 구멍을 조작할 수 있음

함께 책 읽기 맥락에서도 어머니에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첫째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책을 읽어 줄 때처럼 자연스럽게 읽어 주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4권의 책을 읽은 시간, 읽는 순서 또는 읽어야 하는 책의 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 자녀와 협의하여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정한 책 1권을 제시하고 읽도록 한 다른 연구(예: Slaughter, Peterson, & Mackintosh, 2007; Ziv, et al., 2013)와 달리 4권의 책을 제시한 것은 예비연구 결과 부모와 자녀가 선호하는 책을 읽을 때 더 풍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더욱 협조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다. 실제 책 읽기 맥락에서 모든 어머니가 자녀가 책을 고르도록 하였고, 모든 쌍이 4권 중 최소 3권을 읽었는데, 책을 읽는 순서는 어머니-자녀 쌍마다 무작위로 다양하여 책 읽는 순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때 나타나는 순서 효과가 자연스럽게 통제 되었다. 또한 모든 어머니는 책을 그대로 읽지 않고 자녀의 반응이나 이해도를 고려하여 때로는 간단히 때로는 길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읽었다. Ziv 등(2013)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책에 대해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읽을 때 보다 책을 그대로 읽을 경우에 정신 상태 용어를 적게 언급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대상 어머니들이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읽은 것은 정신 상태 용어를 빈번히 언급할 수 있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조성한 것을 의미한다.

책 읽기에 소요된 시간의 편차는 놀이 맥락만큼 크지는 않았다. 어머니와 자녀의 책 읽기는 책을 탐색하고 고르는 시작 부분부터 끝까지 모두 녹화하여 모두 전사하였으나 첫 번째 책을 읽기 시작한 시점부터 10분간 어머니가 사용한 정신 상태 용어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36쌍 중 24쌍은 10분 이상 책읽기를 하였고, 12쌍은 6분에서 9분간 책 읽기를 하였다. 10분 보다 적게 읽은 12쌍에 대해서는 읽기에 소요된 시간에 어머니가 언급한 정신 상태 용어의 빈도를 10분 소요되었을 때의 빈도로 전환하였다(예: 8분 동안 총 13회의 정신 상태 용어를 언급한 어머니에 대해 1.25배로 환산한 횟수를 기록함).

10분의 상호작용만 분석한 것은 다음의 3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놀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유사하게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참여한 어머니-자녀 쌍의 2/3가 10분간 책을 읽었기 때문이고, 셋째는 외국의 연구(예: Symons et al., 2005)에서도 어머니와 5-7세 자녀가 1권의 책을 읽는데 소요된 시간이 평균 6분이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비록 만 2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책 읽기였으나 4권의 책을 제공했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3. 연구도구

어머니와 만 2세 자녀가 연령에 적합한 가장/역할 놀이감을 가지고 놀이하는 맥락과 연령에 적합한 그림책을 읽는 맥락에서 어머니가 사용한 정신상태 용어를 분석하였다. 정신 상태 용어는 대부분의 외국 연구(Jenkins et al., 2003; Osórioa et al., 2012; Symons et al., 2006)에서 분류하는 방식인 욕구(자신이나 타인의 바람, 소망, 욕구에 대한 표현), 정서(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이거나 느낌에 대한 표현), 인지(자신이나 타인의 생각, 사고, 지식, 기억에 대한 표현) 상태에 대한 용어로 분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한국어의 양태 표현 특성을 고려하여 송정(2007)이 추가한 준거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송정(2007)은 한국어의 경우 ‘~라고 하다.’ 또는 ‘~일지 모른다.’ 같은 인지 양태 표현이나 ‘~했으면 좋겠다.’ 또는 ‘~하고 싶다.’ 같은 욕구 양태 표현은

인지나 정서 상태 욕구를 표현하는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포함하였고, 정서 양태 표현은 과거 연구(박재연, 2004, p. 51 재인용)를 기반으로 정서 상태 욕구를 표현하는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표 2> 정신 상태 용어의 범주, 용어 및 사용의 예

정신 상태	용어의 예	사용의 예
욕구 상태	원하다, 필요하다, 바라다, 희망하다, 요구하다, ~하고 싶다, ~하면 좋겠다, ~할래, ~해야지 등	가장/역할놀이: 00(아이이름)랑, 멍멍이랑, 엄마랑 딸기 케익을 같이 먹으려면 접시가 <u>필요한데..</u> 책읽기: 어떻게 하지? 이 아기도 무늬를 갖고 <u>싶은가봐.</u>
정서 상태	좋다, 나쁘다, 신난다, 지겹다, 즐겁다, 슬프다, 흥분된다, 무섭다, 창피하다, 행복하다 등	가장/역 할놀이: 00(아이이름)와 여기 인형들 다 같이 소풍 가면 정말 <u>신나겠지?</u> 책읽기: 그래서 아무거나 막 해서 만들어 주었대. <u>좋았겠지?</u>
인지 상태	생각하다, 결정하다, 인지하다, 깨닫다, 예상하다, 기대하다, 이해하다, 해결하다, ~라고 하다, ~인가보다, ~일지도 모른다, ~일지 모른다 등	가장/역할놀이: 이거 달게 먹는 설탕 <u>시럽인가보다.</u> 책읽기: 그런데 이 무늬를 옮기면 여기 있는 무늬가 <u>땀일 것 같아.</u> 그치?

같은 내용을 이어서 반복적으로 표현할 경우(예: 아이스크림을 가리키며 이어서 “너도 먹고 싶어? 맛있는 것 먹고 싶어?” 라고 표현)는 송정(2007)의 경우와 같이 한 번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책 읽기 맥락에서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거나 책의 내용을 그대로 묘사할 때 나타난 정신 상태 용어는 어머니의 자발적인 언급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예를 들면, 책에 ‘무늬를 가지고 싶었어요,’ 라고 기록되어 있거나 매우 유사하게 적혀 있을 때 어머니가 ‘무늬를 정말 가지고 싶었대요.’ 라고 한 경우는 욕구 상태 용어로 기록하지 않았고 ‘무늬가 없어서 속상해서 가지고 싶었어요.’ 하고 한 경우는 속상하다는 정서를 추가해서 표현한 것이므로 정서 상태 용어 사용으로 기록하였다. 정신 상태 용어 사용 여부의 판단은 비디오와 전사본을 동시에 보며 실시하였다.

어머니가 사용한 정신 상태 용어에 대한 계산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는 전체 발화 수 대비 정신 상태 용어 수를 계산하는 방법(예: Symons et al., 2005)이고, 둘째는 전체 정신 상태 용어 수 대비 각 유형의 정신 상태 용어 수를 계산하는 방법(예: Osório et al., 2012)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발화 수 대비 정신 상태 용어 사용 빈도 보다는 두 맥락에서 사용한 정신 상태 용어 중 각 유형의 정신 상태 용어가 각각 어떤 비율로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후자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정신 상태 용어 사용에 대한 코딩은 연구자에 의해 실시되었고, 각 맥락 별로 4쌍의 어머니-자녀 상호작용 전사본(약 11%)을 연구 보조자가 별도로 코딩하여 코더 간 일치도를 살펴 본 결과 가장/역할 놀이 맥락은 92%, 책 읽기 맥락은 88%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4. 연구절차

1) 예비연구

가장/역할 놀이 맥락에서 사용될 놀잇감과 책 읽기 맥락에서 사용될 책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대상이 아닌 어머니-만 2세 자녀 3쌍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가장/역할 놀이 맥락에서는 제공되는 놀잇감이 만 2세 자녀의 흥미를 유발할 만큼 신선한지와 놀이가 지속될 만큼 종류와 개수 측면에서 충분한지 살펴보았다. 만 2세 영아들은 놀잇감을 보자 흥미를 보였고 20분 이상 놀이를 지속하였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본 연구 과정에서도 놀잇감 중 특정 놀잇감 1-2개를 보고 ‘집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 고 한 경우는 있었으나 ‘집에 있는 것과 똑같다.’ 라고 한 경우는 한 쌍도 없었다.

책 읽기 맥락에서는 제시한 책이 만 2세 영아의 수준에 맞는지, 새로운 책인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어머니와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는지를 살펴보았다. 책은 쪽 수, 내용, 조작하는 방식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없었다. 제시한 책은 모든 쌍에게 새로운 책이었는데, 실제 본 연구 과정에서도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책’ 이라고 한 경우는 한 쌍도 없었다. 한편의 책을 정해 주고 읽으라고 했을 때 영아가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여러 권을 주고 원하는 책을 선택해서 읽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권의 책을 제공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내외였다. 예비 연구 대상 어머니는 먼저 책을 골라 읽기를 제안해도 자녀가 거절하면 자녀가 고르도록 하는 방법을 썼고, 어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보다는 묘사하는 방식으로 읽어 주었고, 읽다가 자녀가 다음 장을 넘기거나 앞 또는 뒤의 장으로 뛰어 넘어 가면 자녀가 하는 대로 따라 가면서 읽어 주었다. 만 2세 영아는 같은 장 또는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어 주기를 원하기도 했고, 읽다 그만 둔 책을 조금 후 다시 읽어 달라 청하는 등 만 2세 영아의 전형적인 책 읽기 방식을 보였다. 이런 책 읽기 방식을 참고하여 본 연구 과정에서 분석할 때는 각 책에 대해 어머니가 언급하는 정신 상태 용어를 분석하기 보다는 책 읽은 시간 10분 동안 언급한 정신 상태 용어를 분석하기로 결정하였다.

예비 연구 대상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여 두 맥락에서 언급된 정신 상태 용어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수 차례의 이 메일을 통해 정신 상태 용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기존 연구자(예: 송정, 2007)의 자문을 구해 일관된 기준을 세웠다.

2) 본 연구

연구대상이 될 어머니와 만 2세 자녀는 서울시에 소재한 00구의 보육정보센터에 방문한 어머니와 자녀를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모집된 40쌍 중 모든 쌍은 가장/역할 놀이에 참여했지만, 4쌍은 책 읽기를 하는 동안 자녀가 빈번히 책 읽기를 거부하였다. 이 어머니들은 자녀의 주의를 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신 상태 용어를 일부 사용하였으나 책을 거의 읽지 못해 책에 관한 정신 상태 용어는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연구대상은 36쌍의 어머니-만 2세 자녀였다.

어머니와 만 2세 자녀는 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활동을 하러 방문한 날 가장/역할 놀이와 책 읽기를 했는데, 두 맥락에서의 활동은 다른 날 이루어졌다. 모든 쌍이 가장/역할 놀이를 먼저 했

으나 두 맥락에서의 활동이 최소 2-3일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활동의 순서에 따른 효과는 없다고 판단된다. 두 활동 모두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작은 독립된 방에서 이루어졌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 편히 앉아서 놀거나 책 읽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5. 자료 분석

연구문제 1의 일반적 경향은 빈도와 비율에 기초한 평균, 표준편차, t-검정을 사용하여 살펴 보았고, 연구문제 2의 두 맥락 간 관련성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III. 연구결과

연구 문제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고려할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역할 놀이 맥락과 책 읽기 맥락 모두에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였다. 어머니와 자녀는 가장/역할놀이 맥락에서는 평균 1414.9초(표준편차 = 268.6초; 범위 920-2160초)동안 놀이했고, 책 읽기 맥락에서는 평균 735.6초(표준편차 = 334.5초; 범위 382-1890초)동안 책을 읽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소요된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t = 9.5, p < .01$).

1. 두 맥락에서의 정신상태 용어 사용의 일반적 경향

가장/역할 놀이 맥락과 책 읽기 맥락에서 어머니가 사용한 정신 상태 용어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두 맥락에서의 정신 상태 용어 사용 경향

맥락	정신 상태	빈도		비율	
		평균(표준편차)	범위	평균(표준편차)	범위
가장/ 역할	육구	25.1(6.1)	16-41	.70(.09)	.52-.90
	정서	5.5(2.3)	1-10	.16(.07)	.02-.30
	인지	4.9(4.0)	1-19	.13(.09)	.03-.39
	총	35.5(7.6)	25-59	1.0	.
책 읽기	육구	17.3(5.5)	6-66	.73(.13)	.48-1.0
	정서	3.8(3.6)	0-11	.16(.10)	.00-.48
	인지	2.4(3.2)	0-10	.10(.13)	.00-.44
	총	23.5(6.9)	11-53	1.0	.

두 맥락에서의 정신 상태 용어 사용 경향을 빈도와 비율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빈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어머니들은 책 읽기 맥락보다 가장/역할 놀이 맥락에서 정신 상태 용어를 더 빈번히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들은 가장/역할 놀이 맥락에서 정신 상태 용어를 평균 35.5(표준편차 7.6)회 사용하였는데 유형별로는 욕구 상태(평균 25.1회; 표준편차, 6.1회), 정서 상태(평균 5.5회; 표준편차 2.3회), 인지 상태(평균 4.9회; 표준편차, 4.0회)순으로 빈번히 언급하였다. 반면, 어머니들은 책 읽기 맥락에서는 정신 상태 용어를 평균 23.5(표준편차 6.96)회 사용하였는데 유형별로는 욕구 상태(평균 17.3회; 표준편차, 5.5회), 정서 상태(평균 3.8회; 표준편차 3.6회), 인지상태(평균 2.4회; 표준편차, 3.2회)순으로 빈번히 언급하였다. 둘째, 어머니들은 두 맥락 모두에서 욕구 상태 언어를 정서 상태나 정신 상태 용어보다 높은 빈도로 언급하였다. 셋째,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욕구 상태, 정서 상태, 인지 상태 용어는 어머니 개인 별로 편차가 매우 심했다. 표준편차와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역할 놀이 맥락과 책 읽기 맥락에서 어머니들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정신 상태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매우 빈번히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두 맥락 모두에서 정서 상태와 인지 상태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어머니(즉, 0회 또는 1회 사용)들이 있었다.

두 맥락 모두에서 동일하게 10분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지만 어머니들이 가장/역할 놀이 맥락에서 정신 상태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 것은 어머니들이 말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각 맥락에서 사용한 정신 상태 용어 총 빈도 대비 각 유형 별 정신 상태 용어 사용 비율을 구하여 살펴보았다. 비율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첫째, 두 맥락 모두에서 어머니가 사용한 욕구, 정서, 인지 상태 용어 비율을 유사하였다. 욕구 상태 용어는 .70내외(가장/역할 놀이 맥락 = .70; 책 읽기 맥락 = .73), 정서 상태 용어는 .16(가장/역할 놀이 맥락 = .16; 책 읽기 맥락 = .16), 인지 상태 용어는 .10 내외(가장/역할 놀이 맥락 = .13; 책 읽기 맥락 = .10)정도의 비율로 사용하였다. 둘째, 어머니들은 두 맥락 모두에서 욕구 상태 언어를 정서 상태나 정신 상태 용어보다 높은 비율로 언급하였다. 셋째,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욕구 상태, 정서 상태, 인지 상태 용어는 어머니 개인 별로 편차가 매우 심했다. 표준편차와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역할 놀이 맥락과 책 읽기 맥락에서 어머니들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정신 상태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매우 빈번히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두 맥락 모두에서 정서 상태와 인지 상태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어머니(즉, 0 - .48의 비율)들이 있었다.

빈도나 비율로 살펴 본 일반적인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지 살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맥락에 따른 정신 상태 용어 사용의 차이

	빈도				비율		
	욕구	정서	인지	총	욕구	정서	인지
가장/역할놀이	25.1(6.1)	5.5(2.3)	4.9(4.0)	35.5(7.6)	.70(.09)	.16(.07)	.13(.09)
책 읽기	17.3(5.5)	3.8(3.6)	2.4(3.2)	23.5(6.9)	.73(.13)	.16(.10)	.10(.13)
<i>t</i> 값	5.7**	2.9*	3.8*	7.0**	-.96	-.20	1.1

** $p < .01$; * $p < .05$.

동일한 10분간 어머니들이 사용한 전체 정신 상태 용어 빈도($t = 7.0, p < .01$), 욕구 상태 용어 빈도($t = 5.7, p < .01$), 정서 상태 용어 빈도($t = 2.9, p < .05$), 인지 상태 용어 빈도($t = 3.8,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가장/역할 놀이 맥락에서 사용한 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비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두 맥락에서 사용한 어머니들의 정신 상태 용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어머니들은 동일한 시간 동안 가장/역할놀이 맥락에서 정신 상태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지만, 세 가지 유형의 정신 상태 용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맥락에 따라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2. 두 맥락에서 어머니가 사용한 정신 상태 용어의 관련성

가장/역할 놀이 맥락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정신 상태 용어와 책 읽기 맥락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정신 상태 용어가 관련 있는지 알아 본 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 두 맥락에서 어머니가 사용한 정신 상태 용어의 관련성

		책 읽기 맥락					
		빈도			비율		
		욕구	정서	인지	욕구	정서	인지
가장/ 역할놀이 맥락	욕구	.47**	.26	.16	.42**	-.21	-.27
	정서	.22	.50**	.25	.15	.42**	.25
	인지	.12	.09	.37**	-.32	-.10	.41**

** $p < .01$; * $p < .05$.

하나의 맥락에서 정신 상태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어머니들은 다른 맥락에서도 정신 상태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빈도와 비율 모두로 보았을 때, 가장/역할놀이 맥락에서 욕구 상태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어머니는 책 읽기 맥락에서도 욕구 상태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빈도 $r = .47, p^{**} < .01$; 비율 $r = .42, p^{**} < .01$). 가장/역할놀이 맥락에서 정서 상태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어머니는 책 읽기 맥락에서도 정서 상태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빈도 $r = .50, p^{**} < .01$; 비율 $r = .42, p^{**} < .01$). 또한 가장/역할놀이 맥락에서 인지 상태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어머니는 책 읽기 맥락에서도 인지 상태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빈도 $r = .37, p^{**} < .05$; 비율 $r = .41, p^{**} < .05$).

IV. 논의 및 결론

1. 두 맥락에서의 정신상태 용어 사용의 일반적 경향

가장/역할 놀이와 책 읽기 맥락에서 어머니들이 사용한 정신 상태 용어의 경향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어머니들은 10분이란 동일한 시간 동안 자녀와 상호작용하였을 때 책 읽기 맥락보다 가장/역할 놀이 맥락에서 정신 상태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한 가지 맥락에서의 정신 상태 용어 사용만 살펴본 과거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맥락에서의 정신 상태 용어를 비교하였다. 동일한 어머니가 맥락에 따라 사용하는 정신 상태 용어의 빈도가 달랐다는 것은 비고스키(Vygotsky, 1978)가 강조한 바와 같이 특정 맥락이 특정 유형의 상호작용이나 특정 유형의 언어가 더 많이 사용되는 환경을 조성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어야 하는 책 읽기 맥락과 비교할 때 어머니와 자녀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가장/역할 놀이 영역에서 놀이가 약 2배(평균 1414초 vs. 평균 735초)가량 오래 지속되었다. 이는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게 오래 지속되는 가장/역할 놀이 맥락이 영아가 어머니가 사용하는 정신 상태 용어를 더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는 맥락임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들은 두 맥락 모두에서 욕구 상태 언어를 정서 상태나 정신 상태 용어보다 자주 언급하였다. Symons 등(2006)의 연구에서도 10분 동안 어머니들이 사용한 유형별 정신 상태 용어 중 욕구 상태 언어 사용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Osórioa 등(2012)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한 말의 16.6%가 정신 상태 용어였는데, 그 중 욕구 상태 용어를 가장 빈번히 사용하였다. 또한 이 결과는 Jenkins 등(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연구자들은 동생이 2세-4세이고 형이 4세-6세인 가정에서 어머니가 형제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했는데, 어머니는 형제의 나이가 어릴수록 욕구 상태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형제의 나이가 많을수록 인지 상태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발달적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욕구에 대한 이해가 신념에 대한 이해보다 빨리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ore, Furrow, Chiasson, & Patriquin, 1994). 연령이 어릴수록 추상적인 개념인 인지 상태보다는 실생활에서 끊임없이 성인이나 또래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 욕구 상태에 대한 이해가 빨리 발달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대화에서도 이런 패턴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Ruffman 등(2002)도 어린이들의 사회적 이해는 부모가 사용하는 욕구에 대한 언어로 시작되고 유아기를 거치면서 점차 신념이나 인지 상태에 대한 언어로 발전하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어머니들이 욕구 상태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마음 이론 발달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초기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세 가지 유형의 정신 상태 용어를 구별하지 않았으나 구별한 몇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인지, 욕구, 정서 상태 용어는 서로 다른 잠재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Bartsch와 Wellman(1995)와 Ruffman 등(200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사용한 인지상태 용어보다는 욕구 상태 용어가 자녀의 후기 발달을 더 잘 예측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2세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이 욕구 상태 용어를 많이 사용한 것은 영아기 자녀의 후기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욕구, 정서, 인지 상태 용어는 어머니 개인 별로 편차가 심했다. 어떤 어머니들은 빈번히 세 가지 유형의 정신 상태 언어를 사용한 반면 어떤 어머니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Symons 등(2006)의 연구에서도 욕구 상태 용어의 범위는 0-23회, 인지 상태 용어의 범위는 0-19회, 정신 상태 용어의 범위는 0-14회로 개인차가 매우 컸다. Meins(1997)도 어머니들이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는데 이때 정신 상태를 언급하는 정도에 개인차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어떤 어머니들은 자녀의 행동이나 사물의 물리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를 하는 반면 어떤 어머니들은 자녀의 정신이나 마음의 상태에 대해 초점을 두고 대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같은 상황에서 어떤 어머니는 사물의

특성이나 상태 또는 자녀의 행동을 단순히 묘사한 반면 어떤 어머니는 정신 상태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어떤 어머니는 “여기 접시가 있네.” 또는 “00가 아이스크림을 멍멍이도 주네.” 라고 상태를 단순히 묘사하는 반면 어떤 어머니는 “와! 여기 00가 좋아하는 예쁜 접시가 있네!” 또는 “00가 멍멍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고 싶구나.” 라고 정신 상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표현 방식의 개인차가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마음이론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어머니들은 동일한 시간 동안 가장/역할놀이 맥락에서 정신 상태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지만, 세 가지 유형의 정신 상태 용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맥락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어떤 맥락에서든 어머니들은 욕구 상태 언어를 유사한 비율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정서 상태 언어와 인지 상태 언어를 유사한 비율로 비교적 적게 사용함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가정이나 실험실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일상적인 가족 간의 상호작용, 책 읽기, 가상 놀이 등의 다양한 활동을 살펴 본 기존 연구(예: Jenkins, et al., 2003; Meins, 1997; Moore, et al., 1994)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런 결과가 자녀의 발달적 경향을 고려하여 어머니가 욕구 상태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욕구 상태 용어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자녀의 욕구 상태에 대한 이해가 더 빨리 발달하는 것인지를 규명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는 어머니가 욕구 상태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이것이 결국 자녀의 마음이론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두 맥락에서 어머니가 사용한 정신 상태 용어의 관련성

본 연구에서 하나의 맥락에서 정신 상태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어머니들은 다른 맥락에서도 정신 상태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빈도와 비율 모두로 보았을 때, 가장/역할놀이 맥락에서 욕구, 정서, 인지 상태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어머니는 책 읽기 맥락에서도 욕구, 정서, 인지 상태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결과는 Ziv 등(20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완전히 다른 두 맥락을 비교한 본 연구와는 달리 책 읽기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두 가지 방식의 읽기를 비교한 연구인데, 연구자들은 어머니에게 2권의 책을 주고 한 권을 ‘그대로 읽어줄’ 책으로 다른 한권은 ‘묘사해서 읽어 줄’ 책으로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도 ‘그대로 읽기’ 방식에서 어머니가 언급한 욕구, 정서, 인지 상태 용어는 ‘묘사해서 읽기’ 방식에서 동일한 어머니가 언급한 욕구, 정서, 인지 상태 용어와 관련 있었다. 이 결과는 앞서 비율로 살펴 본 어머니들의 정신 상태 용어 사용의 일반적 경향과 함께 어머니들의 정신 상태 용어 사용 스타일은 상당히 안정적인 특성을 가짐을 시사한다. 비록 맥락의 특성에 따라 다소 많거나 적은 정신 상태 용어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정신 상태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어머니는 어떤 맥락에서든 빈번히 사용하고 정신 상태 용어를 적게 사용하는 어머니는 어떤 맥락에서든 적게 사용한다. 어머니의 정신 상태 용어 사용이 자녀의 후기 마음이론 발달의 밑거름이 됨을 고려할 때 어머니가 정신 상태 용어를 다양한 맥락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Nelson(2005)은 어머니가 여러 상황에서 평서문의 형태나 의문문의 형태로 정신 상태 용어를 사용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평서문을 모방(예: 엄마가 “우리 소풍가면 정말 신나겠다.” 라고 했을

때 자녀가 “소풍, 신내!” 라고 모방함)해서 말하거나 어머니의 질문에 답(예: 엄마가 “초코 아이스크림 필요해? 아니면 딸기 아이스크림 필요해?” 라고 물었을 때 자녀가 “딸기 아이스크림” 이라고 대답함)하면서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정신 상태 언어를 모방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의미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Jenkins 등(2003)도 대인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능력인 마음 이론 능력을 자녀가 발달시키길 원한다면 부모는 다양한 맥락에서 일관되게 자녀의 욕구, 정서, 생각을 읽고 표현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제한점에 기초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이 동일한 시간 동안 책 읽기 맥락보다 가장/역할 놀이 맥락에서 정신 상태 용어를 더 빈번히 사용했다는 결과, 정신 상태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에 있어 어머니 간 개인차가 심했다는 결과, 욕구 상태 용어를 특히 빈번히 사용했다는 결과, 그리고 한 맥락에서 정신 상태 용어를 빈번히 사용하는 어머니는 다른 맥락에서도 빈번히 사용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기 자녀의 마음 이론 발달에 기여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가진다. 부모에게 자녀의 마음 이론 발달의 중요성과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가장/역할 놀이 맥락의 가치, 즉 정신 상태 용어를 자연스럽게 빈번히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맥락이라는 가치를 강조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 자신의 정신 상태 용어 사용 현황을 돌아보게 하고 만약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특정 유형의 정신 상태 용어만 많이 사용하거나, 특정 맥락에서만 사용한다면, 가능한 자주 사용하고,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욕구 상태뿐만 아니라 정서와 인지 상태에 대한 정신 상태 용어도 사용하고, 여러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책 읽기와 역할 놀이의 두 가지 맥락에서 만 2세 자녀를 둔 부모가 사용하는 정신 상태 용어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비록 정신 상태 용어 사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어려운 2세 영아가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자녀의 정신 상태 용어 사용에 대한 분석을 제외했지만 유아기 자녀와 그들의 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할 때는 어머니와 자녀의 정신 상태 용어 사용에 대한 관련성을 이해하려고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의 연령이 2세 일 때 때 사용한 정신상태 용어가 만 3세 경 부터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하는 자녀의 마음이론과 사회적 상징 놀이 같은 다른 영역의 발달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과거 대부분의 연구는 정신 상태 용어와 마음이론의 발달간의 관계(예: Symons 등, 2006)를 주로 보았지만 최근 사회적 상징 놀이 수준(Osório et al., 2012)이나 기타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만 2세 자녀의 수가 비교적 적었던 점, 관련 연구에서 분석한 시간에 기초해 결정한 10분이었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던 점, 사용하는 정신 상태 용어가 어머니의 책 읽어주기 경험이나 영아의 문해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문학적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서보다 더 우수한 도서를 선정할 경우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추후 연구를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박금주(2009). 유아의 낙관성과 정신상태 용어 및 이야기 구조 발달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연(2004).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영주(2009). 이야기 만들기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마음관련 표현과 마음이론간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4(3), 425-446.
- 송 정(2007). 만 4세 유아의 사회극놀이에서의 정신상태 용어와 마음이론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자, 이종숙, 신은수(2004).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에 따른 가장놀이의 언어기능 수준, 어휘력, 정신상태용어 사용 능력 발달. **유아교육연구**, 24(4), 141-160.
- 이영자, 이지현(2006). 유아의 개인적, 가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정신상태 용어, 내러티브 수준, 마음이론, 어휘 수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1), 153-178.
- 이은수(2009). 유아의 마음이론과 그림책 장르에 따른 정신상태용어 사용과 상호작용전략의 차이.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은희, 조희숙(2010). 어머니 마음상태용어와 유아 마음상태용어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5(1), 235-261.
- Bartsch, K., & Wellman, H. (1995). *Children talk about the min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lson, S., & Moses, L.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inhibitory control and children's theory of mind. *Child Development*, 72(4), 1032-1054.
- Cassidy, K., Ball, L., Rourke, S., Werner, R., Feeny, N., Chu, J., et al. (1998). Theory of mind concepts in children's literature. *Applied Psycholinguistics*, 19(3), 463-470.
- Dun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159-448.
- Flavell, J. (1999). Cognitive development: Children's knowledge about the min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 21-45.
- Garner, P., Carlson Jones, D., Gaddy, G., & Rennie, K. (1997). Low-income mothers' conversations about emotions and their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6(1), 37-52.
- Hughes, C. (2002). Executive functions and development: Why the interest?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1(2), 69-71.
- Hughes, C., & Dunn, J. (1998). Understanding mind and emotion: Longitudinal associations with mental state talk between young friends. *Developmental Psychology*, 34(5), 1026-1037.
- Jenkins, J., Turrell, S., Kogushi, Y., Lollis, S., & Ross, H. (2003).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dynamics of mental state talk i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4(3), 905-920.
- Meins, E. (1997). *Security of attachment and the social development of cognition*. Hove: Psychology Press.
- Meins, E., Fernyhough, C., Wainwright, R., Clark-Carter, D., Das Gupta, M., Fradley, E., et al. (2003). Pathways to understanding mind: Construct valid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 maternal mind-mindedness. *Child Development*, 74(4), 1194-1211.
- Meins, E., Fernyhough, C., Wainwright, R., Das Gupta, M. D., Fradley, E., & Tukey, M. (2002). Maternal mind-mindedness and attachment security as predictors of theory of mind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 73(6), 1715-1726.
- Moore, C., Furrow, D., Chiasson, L., & Patriquin, M. (1994). Developmental relationships between production and comprehension of mental terms. *First Language*, 14(40), 1-17.
- Moss, E., Gosselin, C., Parent, S., Rousseau, D., & Dumont, M. (1997). Attachment and joint problem-solving experiences during the preschool period. *Social Development*, 6(1), 1-17.
- Nelson, K. (2005). Language pathways into the community of minds. In J.W. Astington, & J.A. Baird (Eds.), *Why language matters for theory of mind* (pp. 26-4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ntari, L., & Thompson, R. (2008). attachment, parent-child discourse and theory-of-mind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17(1), 47-60.
- Osório, A., Meins, E., Martins, C., Martins, E., & Soares, I. (2012). Child and mother mental-state talk in shared pretense as predictor of children's social symbolic play abilities at age 3.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35(4), 719-726.
- Ruffman, T., Slade, L., & Crowe, E. (2002). The relation between child and others' mental state language and theory-of-mind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 73, 734-751.
- Shahaeian, A., Peterson, C., Slaughter, V., & Wellman, H. (2011). Culture and the sequence of steps in theory of mind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7(5), 1238-1247.
- Slaughter, V., & Repacholi, B.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ory of mind: What are we investigating? In B. Repacholi & V. Slaughter (Eds.),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ory of mind* (pp. 1-12). New York: Psychology Press.
- Slaughter, V., Peterson, C., & Mackintosh, E. (2007). Mind what mother says: Narrative input and theory of mind in typical children and those on the autism spectrum. *Child Development*, 78(3), 839-858.
- Symons, D. (2004). Mental state discourse, theory of mind, and the internalization of self-other understanding. *Developmental Review*, 24(2), 159-188.
- Symons, D., & Peterson, C., Slaughter, V., Roche, J., & Doyle, E. (2005). Theory of mind and mental state discourse during book reading and story-telling task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3(1), 81-102.
- Symons, D., Fossum, K., & Collins, T. (2006). A longitudinal study of belief and desire state discourse during mother-child play and later false belief understanding. *Social Development*, 15(4), 676-692.
- Thompson, R. (2006).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 Social understanding, relationships, self, conscience. In W. Damon, R. M. Lerner (Eds.)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ume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24-98). New York: Wiley.
- Thompson, R., & Raikes, H. (2003). Toward the next quarter-century: Conceptual and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for attachment theory.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15, 691-718.

Vygotsky, L.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Ziv, M., & Frye, D. (2003). The relation between desire and false belief in children's theory of mind: No 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9(5), 859-876.

Ziv, M., Smadja, M., & Aramb, D. (2013). Mothers' mental-state discourse with preschoolers during storybook reading and wordless storybook tell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8(1), 177-186.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maternal mental-state talks while mothers and their 2-year-old children interacted in two contexts which were pretense/role-play and shared book reading contexts. Thirty-six dyads of mothers and their 2-year-old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thers made more references to mental-state in the pretense/role-play context than in the book reading context, but the ratio of using the three types of mental state talks(i.e., desire, feeling, and cognition) did not vary with the contexts. The most frequently used mental-state talk by the mothers was 'desire' in both contexts and the tendency to use the three types of mental-state talks in the two contexts was rel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implications for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on the role of mother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theory of mind.

▶*Key Words: mental-state talk, role of mother, pretense/role-play context, shared book reading context*

논문투고 2014. 01. 21.
수정원고접수 2014. 04. 02.
최종게재결정 2014. 04. 18.